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85～102.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85

HIV 감염인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한계

– 사회적기업 운영자와 감염인 근로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 형 원* **박 태 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이 연구는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한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HIV/AIDS 사회적기업인 B기업의 운영자 4명과 감염인 근로자 9명을 면접하고,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결합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를 넘어, 감염인이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기'라는 핵심주제와 함께 관계적·서비스적·경제적·정책적 개입의 네 가지 기능이 도출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 심리·정서적 지원과 일상 회복, 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동과 소득·창업 기회 제공, 차별적 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위한 권리옹호를 수행하였다. 한편, 사회적기업 내부의 안전망이 외부의 낙인과 차별까지 해소하기 어렵고, 일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 수급 단절과 불안정한 경영 기반이 자립과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IV 감염인의 자립을 단순한 탈수급이나 취업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과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일상과 고용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문서비스, 지역사회 및 공공제도가 결합된 통합적 자립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HIV/AIDS,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체계, 주제분석

* 주저자: 박형원/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014/E-mail: swhwp@iscu.ac.kr
** 교신저자: 박태정/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019/E-mail: withjoy@iscu.ac.kr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AIDS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항레트로바이러스제치료(ART)의 일반화로 AIDS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현재는 완치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진다. 의료적 치료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차별, 가족 및 사회관계의 단절,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강선경, 2014, 질병관리청, 2020, 박형원, 박태정, 2022). 치료의 발전으로 HIV 감염인[1]에 대한 관점은 생존에서 삶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감염인이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즉, HIV 감염인의 삶은 질병의 치료에서 확장되어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HIV 감염인에게 일은 경제적 수입원인 동시에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감염인에게 일은 환자라는 정체감을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며(Rabkin, et al., 200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유지(Rushing, 1995), 대인관계 증가 및 건강행동촉진(Yu et al., 2020), 안녕과 존엄의 주요 자원(Timmons & Fesko, 2004)이 된다.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한 HIV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이들의 경험은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서기'의 주제로 도출되었다(박형원, 박태정,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만으로 HIV 감염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HIV 감염인은 장기간의 건강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우울과 사회적 고립, 주거불안, 장기간의 노동시장 이탈, 낙인과 차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의 발생은 기존 공공부조 및 의료비 지원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 탈수급을 포기하거나(강선경, 2014; 박형원, 박태정, 2022) 일반 시장경제에 진입하더라도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이 반드시 안정적인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HIV 감염인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 제공이나 취업지원을 넘어 건강, 심리·정서, 사회관계, 주거, 소득, 직업훈련과 사회참여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2]으로서 사회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영리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그 밖의 취약계층 등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 정신장애인(조상미 외, 2012), 결혼이주여성(이현주, 2016; 황정은 외, 2017),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김미영, 최정숙, 2022),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하춘광, 김효순, 2015)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1) HIV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된 사람을 말하며,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임상소견이나 검사소견 등이 나타난 경우이다(HIV/AIDS 신고 현황 연보, 2026). 본 연구에서 '감염인'은 HIV 감염상태와 AIDS 환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PLWHA(people living with HIV/AIDS), PL로 표기하기도 한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적기업이 소득을 넘어 보호된 근로환경, 관계형성, 자신감 회복, 사회통합 등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Chandra와 Shang(2019)은 HIV/AIDS 영역에서 활동하는 58명의 사회적기업가들의 실천을 분석하여 HIV/AIDS 관련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관계적(relational), 서비스(service), 경제적(economic), 정책적(policy) 개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HIV 감염인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관계, 서비스, 경제활동 및 정책의 변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HIV 감염인의 근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감염인의 사회적응(강선경, 2014), 감염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김지영 외, 2011; 박형원, 박태정, 2020)와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박형원, 박태정, 2022), 활동가의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박형원, 2022)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감염인 개인이나 운영자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였으며, 여기서 나아가 사회적기업이 HIV 감염인의 자립을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자립지원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handra와 Shang(2019)이 제시한 관계적·서비스적·경제적·정책적 개입의 관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연구문제 2.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의 한계는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고찰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2023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3,737개로, 고용인원,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기업 근무자들은 근로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근로환경과 상대적으로 덜 차별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직업만족도를 가지며(조상미 외, 2012; 이현주, 2016)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 상황대처 능력, 공동체에서 자신과 동료를 이해하는 능력(하춘광, 김효순, 2015), 일상생활기술을 습득(조상미 외, 2012)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사회적기업 연구가 개별 연구자 중심으로 질적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운영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중 6개를 선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장기간의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24). 캐나다의 WISE 연구에서 본 연구에 참고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숙 또는 노숙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실험집단(WISE 참여자)과 비교집단(WISE 비참여자)의 실업률은 비슷하게

시작하였으나 3년 차 조사에서는 지속적 실업의 비율이 실험집단에서는 30%, 비교집단에서는 51%였으며, 자존감 향상,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의 효과, 공공지원 의존율 감소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3년 후에도 신체·정신건강문제, 물질사용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WISE 참여 이후 고용과 심리사회적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신체·정신건강 및 물질사용문제가 지속되었다는 결과는 고용지원만으로 복합적인 취약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직업훈련기관에서 선정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청년들에게서 불안감소, 푸드뱅크 이용감소, 지인 집이나 쉼터 등 임시거처에 무료로 거주하는 비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를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회적기업 참여자가 비영리직업훈련기관 청년들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참여가 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립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에서 영향받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소규모 농촌 사회적기업에서 식품 생산과정 기술을 배우는 사업에서는 자격증 취득, 소속감과 지역사회 관계형성 등의 효과 외에 투자 1달러당 1.89달러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덕분에 운영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수입이 더 늘어야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부지원금에 대한 높은 의존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제약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 사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짧은 단점이 있었으나 낙인없는 근무환경, 유연한 업무와 근로시간, 기본 생활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질병 때문에 일을 쉬어도 건강회복후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로 평가받기보다 자신이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수용적인 문화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이야기하고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낮았다. 이 사례는 사회적기업에서는 낙인 없는 조직문화와 유연한 근로조건, 생활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취약성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WISE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뿐 아니라 자존감, 삶의 만족도, 주거안정, 사회적 관계, 소속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낙인 없는 근무환경과 유연한 업무와 근로시간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발생 시 사회보장급여의 삭감은 노동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측면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보여주었다. 캐나다 WISE의 경험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기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적·조직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2. HIV/AIDS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 활동

58명의 Ashoka 사회적기업가 사례를 분석한 Chandra와 Shang(2019)은 HIV/AID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들이 활용하는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관계적 개입(relational intervention)으로서 HIV/AIDS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고 감염인과 일반 대중, 의료진 등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대중 인식개선, 의료제공자 교육, 부문 간 협력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 학교 교육과정 내 HIV/AIDS 교육 포함시키기,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감수성 훈련, 기업·NGO·정부기관·지역사회에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일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개입(service intervention)으로 감염인에게 의료, 상담, 교육, 주거, 사례관리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연결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농장근로자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게 하는 일, 감염인 당사자를 또래 상담사로 육성하여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게 하는 일, 문화·예술·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적 치유 활동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개입(economic intervention)으로 감염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취업, 직업훈련, 소득창출, 창업 등 감염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기본 생필품제공, 직업훈련, 건강보험이 포함된 일자리 제공, 소규모 창업지원 및 마이크로파이낸싱 등 돌봄제공을 넘어 당사자가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다. 또한 제약사와 협력하여 약값인하를 추진하거나 기업·단체·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과 물자를 확보하는 일도 포함된다.

네 번째는 정책적 개입(policy intervention)으로 HIV/AIDS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염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HIV/AIDS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져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Wu et al., 2010) 사회적기업가들은 제도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법률 및 입법 옹호, 시민권 및 직장 내 권리옹호, 보건의료 정책개혁 촉구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HIV/AIDS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이나 고용 창출을 넘어서 감염인에 대한 서비스 개입, 사회의 인식개선, 제도 개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HIV 감염인을 위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적기업인 B 기업[3]의 운영자 4인과 근로자 9인을 심층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 13인은 당시 B 기업 근무자이며, 연구목적과 인터뷰에 동의하였다. 2022년 1월과 4월에 연구자가 B 기업을 방문하여 개별 심층면접(근로자)과 초점집단면접(운영자)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주요 정보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운영자)

참여자	연령	성별	B 기업 관련 경력
A	40대	여	20년
B	50대	여	12년
C	60대	여	10년
D	30대	여	5년

3) 2013년 설립된 에이즈 인식개선 및 감염인 자활지원을 위한 소셜 카페로서 「20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탁월·우수기업 우수사례 모음집」에 우수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B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bighands.or.kr/brand/bighands.php)를 참조 바란다.

<표 2> 연구참여자(근로자)[4]

참여자	연령	성별
1	50대	남
2	50대	남
3	40대	남
4	30대	남
5	50대	남
6	40대	남
7	60대	남
8	40대	남
9	50대	남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에서의 질문은 이 사회적기업에 근무(운영)하게 된 계기, 이 사회적기업에 근무(운영)하면서의 어려운 점, 그 어려운 점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 사회적기업에 근무(운영)하면서의 긍정적 경험, 그 긍정적 경험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결합한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녹취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진술들을 비교·결집하여 초기 개념과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주제들을 HIV/AIDS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관계적, 서비스적, 경제적, 정책적 개입으로 유형화한 Chandra와 Shang(2019)의 분석틀과 비교하여 각 주제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각 주제를 관련 발화 및 전체 녹취록과 반복적으로 대조하여 주제의 내적 일관성, 주제 간 구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3. 연구윤리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면담방법, 녹음 여부, 수집된 자료의 이용 및 보관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면접 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상호 작성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어도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가 원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특히 HIV감염과 관련한 차별, 질병, 사회적 고립 등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회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도 됨을 강조하였다.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참여자의 진술과 연구자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면담 중 불분명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재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는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도출된 개념과 주제를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였다. 또한 운영자와 근로자의 경험을 함께 분석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인식을 비교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분석과 해석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연구자는

4) B 기업은 국내 유일한 HIV/AIDS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노출을 방지하고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제시하였다.

2013년부터 HIV/AIDS 관련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과 참여자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선이해가 자료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자료와 분석결과를 반복적으로 대조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한계는 무엇인가?"이다. 분석결과, '일자리를 넘어, 감염인이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함께 만들기'라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레드리본을 세상에 알려가기' 등으로 추출된 32개의 개념을 'HIV를 알리고 편견의 벽 낮추기' 등 11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고, 이를 Chandra와 Shang(2019)의 개념과 연결하여 4개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4개의 주제는 'HIV와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히며 함께 할 기반 넓히기'(관계적 개입),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살피고 일상과 성장의 기반 만들기'(서비스 개입),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자립의 길 넓히기'(경제적 개입), '관리 중심의 제도를 권리와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정책적 개입)이다. 분석결과는 HIV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한계점으로 크게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제시하겠다. HIV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표 3>, 한계점은 <표 4>와 같다.

<표 3> HIV 감염인 사회적기업의 기능

개입 차원	주제	하위범주	개념
관계적 개입	HIV와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히며 함께할 기반 넓히기	HIV를 알리고 편견의 벽 낮추기	레드리본을 세상에 알려가기
			감염인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접점 만들기
			우리가 해온 일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공감 얻기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 넓혀가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힘 보태기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를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삼기
			사회적 가치를 알리며 도와주는 사람들을 늘려가기
		외부기관과 손잡아 할 수 있는 일 넓히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연결되어 성장의 발판 만들기
			"제안서 한번 내보라"는 기회를 사업 확장으로 이어가기
			외부기관을 HIV 사회적 가치에 함께 참여시키기
서비스 개입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살피고 일상과 성장의 기반 만들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돌보기	겉으로는 알 수 없었던 불안, 두려움, 트라우마를 알아차리고 살피기
			만성화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교육·돌봄, 지역사회 연계로 일상과 성장 지원하기	교육·훈련, 살핌을 통해 함께할 준비를 돕기
			사람을 성장시키고 돌보는 일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로 삼기
			"매일매일 오실 데가 있다"는 일상을 함께 만들기
			지원이 필요한 감염인을 찾아 지원체계에 연결하기

개입 차원	주제	하위범주	개념
경제적 개입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자립의 길 넓히기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맞춰 일할 자리 만들기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찾아 할 수 있는 일로 연결하기
			할 수 있는 만큼 “단계별로” 할 일 마련하기
		일한 경험을 정규직과 창업으로 이어가기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정기적인 일과 소득 제공하기
			수급자에서 4대보험이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 만들기
			사회적기업에서 쌓은 경험이 “씨앗”이 되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창업할 때 “무이자 대출”로 필요한 자금 지원하기
		수급과 노동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립의 길 찾기	“4대보험 가입하면 수급비가 끊기는 상황” 앞에서 생기는 불안 함께 감당하기
			건강과 소득을 따져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일할 길 남겨두기
			탈수급만을 자립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노동 이어가기
		기업을 버티게 하며 일자리 함께 지켜내기	매출이 없어도 사람부터 내보내지 않고 “근무시간 줄이자”며 고용 함께 지켜내기
			새로운 사업을 따내 줄였던 근무시간을 다시 돌려놓기
			기업을 키워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감당할 힘 만들기
정책적 개입	관리 중심의 제도를 권리와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차별을 공론화하고 당사자 권리 옹호하기	자립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차별 문제를 “이슈 파이팅”하기
			부당한 일을 경험한 감염인을 옹호하기
		감염인을 배제하는 제도적 시선과 법 바꾸기	HIV 감염인을 “근로무능력자”로 보는 제도적 판단에 맞서기
			차별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근거로 장애 인정 운동 이어가기
			감염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법과 제도를 없애고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1. HIV와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히며 함께할 기반 넓히기

기업 운영자들은 감염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을 둘러싼 사회의 편견과 거리감을 낮추고, 지역사회 및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Chandra와 Shang(2019)이 제시한 관계적 개입과 연결된다. HIV/AIDS 예방교육과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 자체를 HIV/AIDS와 감염인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특히 카페와 케이터링 등의 사업은 HIV/AIDS 영역에 머물던 활동을 일반 시민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이 공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에이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운영자 B)

"일반 카페에서는 제가 그냥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제대로 판매하는 걸로 끝이지만,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내가 주축이 돼서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근로자 2)

카페는 감염인들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카페를 찾은 고객이 감염인이 근무하는지를 묻고 감염인이 만든 음료를 마시는 것에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HIV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을 직접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딱딱한 무슨 사무실 회의실만 그런 데였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차 한 잔 마시러 오고 (…)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근로자 4)

"저기 감염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에이즈 걸리면 막 몸에 뭐 나고 이렇다던데 커피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지 만 감염인 당사자가 들었으면 다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분을 자신감을 돋우어서 어떻게 또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걱정들이 있기는 하죠."(운영자 D)

운영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 배경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태어 주는 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역단체와 연결하여 활동하면서 감염인들은 지역사회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었고, 새로운 관계에서 안전감을 확인하기도 하고, 서비스 이용자에서 도움 제공자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마술 선생님이 우리 당사자 두 분을 마술을 가르쳐서 마술팀을 구성을 해서 합천에 원폭 피해자 분들한테 마술 공연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당사자가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안전한 감을 자꾸 느끼게, 함께할 수 있는"(운영자 B)

"디자이너이기도 해서 한 달에 무슨 날 해서 커트 천원 파마 삼천 원 계속 이렇게 참여시켰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머리 계속 대주고"(운영자 B)

"본인들이 늘 이용자로서만 있다가 누구에게 봉사도 하고 기쁨도 줄 수 있고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도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계속 좀 만들어 왔었어요."(운영자 A)

"지역사회가 함께 도우니까 되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있었고 또 용기 낸 당사자들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태어 주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아요."(운영자 A)

사회적기업은 감염인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그 의미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면서 지지기반을 만들어갔다.

"지역사회 연대, 지역사회에서도 또 우리한테 보내주는 신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 재네들은 그래도 건져내는 애들이야, 뭔가라도 해내는 애들이야, 그런 능력은 있어, 그리고 진정성 있어. 지역사회에 신뢰나 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운영자 A)

"그런 데 가서 사회적 가치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뭉쳐야 돼 하고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 (…)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소문도 나게 되고 이런 지역사회 연대가 되게 큰 요소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버틸 수 있는 힘."(운영자 A)

시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전문 컨설팅을 받는 기회,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길 때 운영자들은 그것을 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율형 컨설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 참여하기도 하고. 매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운영자 B)

"공공기관에서는 카페나 복지 시설이 있을 때, 편의시설을 이왕이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맡기면 경영평가에도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는 거죠. 제안서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기회로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운영자 B)

특히 이 과정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운영자들은 공공기관이 커피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HIV/AIDS 관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가 카페 운영하면 커피와 서비스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고 (…) 우리가 에이즈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가치있는 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라고 제안을 했고"(운영자 B)

2.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살피고 일상과 성장의 기반 만들기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감염인들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불안, 두려움, 우울 및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운영자들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돌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인식하고 상담과 교육·훈련을 통해 참여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장의 기반을 닦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Chandra와 Shang(2019)이 제시한 서비스 개입과 연결된다.

"거의 100% 수급자분들이고 병원 퇴원하셔서 쉼터로 오시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단절이 다 돼서 혼자 남으셔서 어떻게 할 바도 몰라서 오시고. (…) 한편으로는 차별당했다고 오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차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본인 스스로 죄스럽다고. 왜냐하면 마땅히 차별당해도 된다 에이즈환자는"(운영자 A)

"자기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스한 외모에 점잖은 말투에 이러니까 그분이 속이 그렇게 시끄러운 줄을."(운영자 C)

"감염인이든 비감염인이든 사람을 성장시키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니까"(운영자 A)

사회적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만을 관리하기보다 일상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근로자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업무를 조정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적이고 익숙한 일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집에서 고립되어 지내던 감염인에게 사회적기업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할 수 있는 일상의 기반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괜찮아지면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또 매일매일 오실 데가 있다는 자체가 그 분들한테는 기쁨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초기에는 복지사업 하다시피 막 했던 거죠."(운영자 A)

근로자들도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고 새로운 경험을 얻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제가 여기 상담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정말 뭔가 뭉쳐진 게 풀어지는 게 있어요. 정말로 가끔은 좀 울 때도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근로자 4)

"미술 치료도 있고 원예 치료도 있고 또 인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다 덕되는 거죠."(근로자 7)

3.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자립의 길 넓히기

사회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경제활동, 창업, 탈수급 등은 Chandra와 Shang(2019)의 틀에서 경제적 개입에 해당된다. 사회적기업에서는 감염인의 건강상태와 노동능력, 수급 여부 등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시작하여 일부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나 탈수급, 나아가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근로자도 자활이 아닌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루틴한 일들을 드려요. 단계별로 좀 드리죠.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청소라도 시켜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운영자 A)

"잠재되어 있던 것들 또는 위축되어 있던 것들이 좋아지셔서 이것을, 자원을 바탕으로 삼아 또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드리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거든요."(운영자 A)

"내 자신의 발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일을 해야지 내가 뭐 또 이렇게 보답해 주고 싶고 밥을 함께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되고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근로자 3)

"우리도 이제 자활, 자활이라기보다는 노동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도 생기기도 하고…." (근로자 8)

"PL이라는 신분을 잊어먹을 수는 없었는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막 노출이 되고 이런 게 두려웠는데 뭔가 보호막이 돼주잖아요."(근로자 8)

"PL 중에 탈수급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고, 두 분은 저희 쪽에 원래 4대보험 가입돼 있다가 한 3년 정도 저희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이 두 분은 그게 씨앗이 돼서 창업을 이번에 하셨어요. 별도의 개인 사업자로 해서.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그분들 창업자금 하는 걸 또 대출해 드리고. 무이자로"(운영자 A)

한편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불확실성과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 중단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서류 접수 구청에 다 했는데 당장 진화해서 빼달라고. 불안한 거죠. 자기가 몸은 이러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수급비가 끊기는 상황이니까 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고."(운영자 B)

또한 감염인의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근로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면서 일자리를 지켜나갔다.

"2018년도부터 시급이 쭉쭉쭉 오르니까 우리로서도 매출은 없고 직원들이 5명인데 급여도 못 줄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협동조합이잖아요. 개인이면 일자리 없으니까 나가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고 함께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매출은 이렇고 보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직원들이 근무시간 줄이자. (…)5시간 줄이고. 직원들이 조합원이니까 주인 의식을 잘한단 말이에요."(운영자 B)

"조합원이면서 직원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운영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 기업 자체가 어쨌든 HIV 인식 개선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를. 또 조직원들이 다 미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던 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운영자 A)

4. 관리 중심의 제도를 권리와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운영자들은 감염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감염인을 배제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회적 정제 조직이든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이슈 파이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실제 이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되게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운영자 A)

종사자들은 감염인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관계기관 민원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차별을 공론화하고 당사자를 옹호하였다.

"감염인분들이 내가 되게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같이 인권위 가서 싸운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 어떤 차별을 했던 단체나 기관에 가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운영자 D)

이러한 활동은 감염인이 과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하지 못하고 위축되었지만, 교육과 인권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힘을 갖는 결과로 이어졌다.

"뭐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 내 권리를 찾고 싶고 그냥 뭐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근로자 2)

운영자들은 HIV 감염인을 일률적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는 제도적 시선도 감염인의 노동 참여와 자립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감염인들이 차별로 인해 겪는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고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애인정 운동,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으로까지 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근로무능력자라고 이미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에이즈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다는 상상을 잘 하지 않죠.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수급자로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정부가 근로 무능력자로 만들면 안 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운영자 A)

"1987년도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령을 만들 때는 감시하고 색출해야 된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88 올림픽도 있었고 미지의 질병이 갑자기 1985년도에 처음 보고가 됐으니까.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전히 감염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법 자체를 사실은 없애고 일본처럼 장애인으로 포섭해서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큰 틀에서는"(운영자 A)

5. HIV 감염인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조건

운영자와 근로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은 HIV 감염인에게 안전한 관계와 돌봄, 일자리,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표 4>에 정리하였고, 분석에서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이 선" 안의 안전망도 바깥의 낙인과 공동체 내부의 갈등까지 막아주지는 못함

사회적기업은 감염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감은 사회적기업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일터 밖에서 감염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과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일단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 딱 이 선만 딱 넘어가면 (…)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언제 막 부딪힐지 모르거든요."(근로자 3)

소규모로 운영될 때는 운영자들이 근로참여자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고 수용할 수 있었지만, 조직이 커지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 지점과 직원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나타났다.

"그때는 복지사들이 거의 붙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들어주고 수용해 주려고 하는 자세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운영자 A)

2)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어려움을 살피면서 일자리를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외부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립과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만능이 아닌데, 어떤 병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운영자 A)

<표 4> HIV 감염인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조건

주제	하위범주	개념
“이 선” 안의 안전망도 바깥의 낙인과 공동체 내부의 갈등까지 막아주지는 못함	일터 밖에서 지속되는 노출과 차별의 두려움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과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지속됨
		외부인의 차별적인 말이 어렵게 회복한 자신감을 다시 떨어뜨릴 수 있음
	공동체 안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갈등과 관계의 약화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방식, 장기간의 고립과 상처가 오해·갈등·겉도는 경험으로 이어짐
		조직이 커질수록 개별적인 경청과 수용, ‘같이 한다’는 공동목적의 공유가 약해짐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	심리·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참여의 한계	일과 활동만으로 우울과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어려워 단계적인 참여와 개인별 업무조정이 필요함
	기업만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담·교육·연계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에는 심리와 관계 갈등을 돌볼 전문적인 상담 기능이 부족함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외부 지원체계와의 결합이 필요함
수급 단절과 불안정한 경영 기반 속에서 흔들리는 자립	일할수록 수급을 잃을 수 있는 제도적 역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수급비가 끊기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 지속됨
		수급 중단에 대한 부담으로 탈수급을 선택하기 어려움
	불안정한 매출과 부족한 공적 지원	매출 감소로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이 약화됨
		공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을 기업 스스로 감당해야 함

건강 상태에 따른 근로시간과 업무 조정도 필요하였다. 일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이러한 책임감이 오히려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쉬지 못하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일하면서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아프다고 거짓말할까 한 수십 번 생각해요. (…) 너무 힘든데 고된데 그래도 나가야지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또 나오고”(근로자 8)

3) 수급 단절과 불안정한 경영 기반 속에서 흔들리는 자립

수급제도와 근로소득 사이의 관계는 탈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계와 의료비의 불안을 갖는다. 더욱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는 단시간의 근로소득보다는 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적으로 사실 40시간 일하기도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수급을 포기하려면 40시간은 해야 수급 포기한 거에 대한 약간 리워드가 되는데, 20시간 일해 가지고는 차라리 수급 받는 게 나은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운영자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감염인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기보다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협동조합 방식에서 공동책임과 구성원의 양보를 통해 가능했던 해결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감염인의 자립을 위한 안전한 일터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복합적인 돌봄의 필요, 수급제도의 제약과 불안정한 경영 기반까지 사회적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Ⅴ. 논의

본 연구는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체계로서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HIV 감염인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일자리 제공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HIV/AIDS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확장하는 관계적 개입, 감염인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입, 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동과 소득·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개입, 차별적 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일자리를 넘어, 감염인이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기'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IV 감염인에게 있어 자립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HIV 감염인의 자립을 반드시 탈수급이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완전한 진입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질병에 가해진 낙인으로 인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이 많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감염인의 자립은 수급에서 벗어나는 상태라기보다 자신의 건강과 상황에 맞게 노동에 참여하고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활이라기보다는 노동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라는 근로자의 말은 감염인에게 있어 자립은 '복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HIV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고용'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기업의 효과 외에 HIV 감염인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보다 확장되어 나타났다. 감염인이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고, 일터에서 얻은 안전감과 자신감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완화가 필요했으며,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급제도와 차별적인 법·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는 HIV 감염인의 자립지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고용창출에만 맞추기보다는 관계·돌봄·경제활동·권리옹호가 결합된 통합적 지원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이 선" 밖의 낙인은 기업이 해결할 수가 없고, 일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복지기관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수급제도의 문제점과 불안정한 기업매출 때문에 자립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제약이 있다. 이는 캐나다 WISE 연구에서도 나타난 내용이며, 사회적기업이 자립의 기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립을 둘러싼 모든 조건을 사회적기업 자체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그렇다면 HIV 사회적기업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이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감염인들에게 일상과 고용의 거점이 되고,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제

도가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과 서비스 수준에서는 HIV 감염인의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에 맞는 유연한 근로, 심리상담·의료·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HIV 인식개선, 지역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접점 확대가 따라야 한다. 제도 수준에서는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의료·생계보장이 갑자기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급여조정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handra와 Shang(2019)의 개념을 국내 HIV 사회적기업 사례에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고용만이 아니라 관계적·서비스적·경제적·정책적 차원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유일 HIV 사회적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2022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캐나다의 WISE 연구와 같이 사회적기업 참여로 소득·건강·사회관계·탈수급 등의 변화에 대한 양적연구, 종단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선경 (2014). HIV 감염인들의 사회적응과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RI연구논총, 16(2). 177-202, DOI: 10.23286/gri.2014.16.2.008.

김미영, 최정숙 (2022).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기업 ㈜ 브라더스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3-35.

김지영, 신기수, 박영미, 임은주, 남현아 (2011). 남성 HIV 감염인의 에이즈 환자 간병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4). 334-344.

박형원 (2022). HIV/AIDS 감염인 사회적기업 활동가의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인문사회 21, 13(5). 2761-2775, DOI 10.22143/HSS21.13.5.193.

박형원, 박태정 (2020). HIV/AIDS 분야 종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감염인의 삶에서 일의 의미에 대한 연구. 인문연구, 90. 249-280, http://dx.doi.org/10.21211/JHUM.90.9.

박형원, 박태정 (2022). HIV/AIDS 감염인의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의 의미. Crisisonomy, 18(9). 77-93,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9.77.

이현주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4). 25-51.

조상미, 김경희, 최미선, 백은지 (201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기업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146-174.

질병관리청 (2020).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청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6). 2025 HIV/AIDS 신고현황 연보. 청주: 질병관리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 2023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보고서. 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하춘광, 김효순 (2015).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한부모여성 가장의 노동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43-166, DOI:10.22867/kaqsw.2015.9.2.143.

황정은, 한송이, 김효진 (2017).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삶 변화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0(1). 165-189, DOI : 10.32675/ses.2017.10.1.006.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Chandra, Y., & Shang, L. (2019), Social Entrepreneurship Interventions in the HIV/AIDS Sector: A Social Entrepreneurship-Social Work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Work, 64*(1), 1–19, DOI: 10.1177/0020872818807735.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2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 Research Program – Synthesis – 2017 to 2022.* Government of Canada.

Rabkin, J. G., McElhiney, M., Ferrando, S. J., Van Gorp, W., & Lin, S. H. Lin. (2004). Predictors of Employment of Men with HIV/AIDS: A Longitudinal Study. *Psychosom Med. 66,* 72–78.

Rushing, W. A. (1995). *The AIDS Epidemic: Social Dimensions of an Infectious Disease.* Boulder, CO: Westview Press.

Timmons, J. C., & Fesko, S. L. (2004). The Impact, Meaning, and Challenges of Work: Perspectives of Individuals with HIV/AIDS. *Health and Social Work. 29*(2), 137–144.

Wu, Z., Wang, Y., Detels, R., & Rotheram–Borus, M. J. (2010). China AIDS policy implementation: reversing the HIV/AIDS epidemic by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9*(suppl 2), ii1–ii3.

Yu, Y., C. Zhi, H. Shenglan, C. Zhicheng, & Z. Kailin. (2020). What Determines Employment Quality among People Living with HIV: An Empirical Study in China. *PLoS ONE. 15*(12). e024306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3069.

투고일자: 2026. 8. 31.
심사일자: 2026. 9. 29.
게재확정일자: 2026. 10. 5.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85～102.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85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Supporting Self-Reliance among People Living with HIV/AIDS

Hyung Won Park Tae Jung Park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supporting the self-reliance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PLWH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operators and nine PLWHA employees of a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combining deductive and inductive approaches. The findings identified four key functions: relational, service, economic, and policy interventions, which jointly reflected the overarching theme of "Building a foundation for PLWHA to live independently beyond employment." The social enterprise connected PLWHA with communities; provided psychosocial and daily-life support; created flexibl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income, and entrepreneurship; and advocated for changes in discriminatory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However, its supportive role was limited by persistent stigma outside the workplace, the burden of providing both employment and care, the loss of public benefits associated with earned income,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lf-reliance for PLWHA extends beyond employment or withdrawal from public assistance. Rather, it involves participating in work, regaining social roles, and living as members of the community with adequate support. Therefore, sustainable support provision requires social enterprises to work in conjunction with professional services, community resources, and public support systems.

Key words: HIV/AIDS, Social Enterprise, Self-Reliance Support System, Thematic Analysis